

대법원은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의 대상외」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생활 보호를 받지 않고 생활 보호 지급액 보다 적은 돈으로 필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1954 년 부터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급이 정주 ·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위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재량에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 월 영주 자격을 가진 오이타현 중국국적의 여성이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생활이 곤란한 경우 법적으로 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라고 일으킨 재판에서 「생활보호비의 대상은 일본 국민뿐」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률의 해석을 나타낸 것으로 자치제의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생활 보호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과 「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을 『은혜』의 차원으로 돕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정책에 따라 지급이 중단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급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위협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활은 자신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유비무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곤란하지 않도록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두는 편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티끌 모아 태산」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절약하여 저축해 두면 언젠가는 큰돈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쓰지 말고 만일의 경우를 위해 저축 해 둡시다. 「힘들면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 준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가 일본에서의 생활 기본입니다.

또한 현재 생활보호비 수급자 중에는 일도 하지 않고 술과 담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일본어 교실에 다녀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을 찾아 봅시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생활보호비의 일부를 본국에 송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보호비 지급은 정지됩니다. 생활보호비는 모두가 낸 세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번 돈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FICEC 에 상담하러 오십시오. 모두 지혜를 짜, 생활 곤궁자 자립지원제도 등의 방법을 생각합시다

해설 ·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이시이 나나에

자전거의 교통위반에도 엄한 벌칙!! 6월부터 실시 (예정)

경시청은 해마다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자전거를 운전할 때의 「위험 행위」로 14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14 가지의 위험 행위로 3 년 이내에 2 회 이상 검거 된 때에는 안전 강습의 수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강습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5 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운전을 가볍게 보시지 말고 교통 규칙을 잘 지키셔서 일본에서의 생활에 흠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보행자전용표식

■기억해 두자!! 벌칙이 부과되는 자전거의 「위험행위 14」

1. 신호무시
2. 음주 운전
3. 일시정지의 표식 무시
4. 브레이크가 없는 등 정비불량의 자전거 운전
5.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
6. 차의 통행이 금지된 길을 달렸을 때
7. 보행자 전용 도로를 통행했을 때
8. 자전거의 통행이 인정되어 있지 않은 보도를 통행했을 때
9. 보도가 없고 차도의 가장자리에 쓰여진 도보를 위한 밴드 부분 「노측대」를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는 속도나 방법으로 통행했을 때
10.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왼쪽에서 달려 오는 차등 진행이 우선시 되고 있는 차를 방해 했을 때
11.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직진이나 좌회전 하는 차의 진행을 방해했을 때
12. 자전거통행이 가능한 보도에서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을 때
13. 건널목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건넌을 때
14. 신호기가 없는 둥근 모양의 「환상 교차로」에서 둥근부분에 있는 차의 통행을 방해했을 때

코사지를 만들어 보세요

아직 걱정! 노로바이러스에 주의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올해도 각지에서 보고 되고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십시오. 감염되면 1~2일의 잠복기간 후에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서 남은 추운 겨울을 이겨냅니다.
- 조리전, 식사 전, 화장실 후에는 손을 잘 씻읍시다
 - 조리기구는 충분히 가열처리를
 - 식품은 중심부까지 가열처리를 합시다

- 일 시 2월 25일 (수) 13시부터
 - 장 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비 용 800 엔
 - 용 구 신문지 가위
-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옷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코사지



FICEC 사롱의 2월 이벤트는 세계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당신만의 코사지 만들기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당신의 센스를 살리는 멋진 꽃장식.

이제 외출하실 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연출하는 코사지로 결정합시다.